"HMM 나무호 수리 돌입… 정상운항까지 한두 달 가량 예상"

호르무즈 해협 피격 후 두바이항 도착
변수 많아 수리 후 상황 예측 어려워
수리 길어지면 신규 운송 차질 타격
기존 운항 일정 등 기회비용 상당

▲ 미상의 비행체 타격으로 훼손된 나무호 선미 외판 모습. /외교부

◀ HMM 나무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의 비행체로부터 피격당한 HMM 나무호가 정상 운항을 위한 수리 기간이 최소 한두 달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HMM 관계자는 11일 "현재 우리 선박은 두바이 항구에 도착해 현지 수리조선소에서 수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현지 조선소와 협의해 나무호 수리작업에 돌입하며 정상 운항을 위한 작업 기간은 한 두 달 가량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나무호는 8일에야 두바이항에 도착했다. 나흘에 걸쳐 선박을 이동시킨 것은 예인선을 구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평소보다 안전하게 운항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휴전 상태에서 하루 15척 이하의 선박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허용되며 항행은 이란의 승인과 특정 프로토콜 집행을 조건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부분 해운사들이 선박을 두바이 앞으로 이동시켰으며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다시 안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HMM 관계자는 "당시 선박들이 해협 통과를 위해 입구쪽으로 이동해 있었고 나무호도 해협 안쪽으로 이동해 닻을 내리고 정박한 상황에서 외부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으로 피신한 상태고 현지 변수가 많아 선박 수리 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피격 부위인 좌측 선미 외판에는 폭 약 5m, 선체 내부 방향으로 깊이 약 7m 규모의 파공이 발생했다.

나무호는 적재용량(DWT) 3만8000t급의 다목적 화물선(MPV)으로 전쟁보험 특약을 통해 전손 시 최대 1000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나무호가 두 달 동안 갇힌 상황에서 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신규 운송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3월 말 기준 전쟁보험료, 유류비, 선원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며 하루 약 4억9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기존 운항 일정이 차질을 빚고 신규 운송 계약도 수행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무호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5일까지 중국 칭다오와 펑라이, 타이창 등을 거쳐 중량 화물을 선적한 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하역을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민간선박 공격 용납 안 돼… 강력 규탄"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추가 조사 통해 공격 주체 등 식별
비행체 2기, 1분 간격 두 차례 타격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은 11일 HMM 나무호 폭발 사고가 외부 피격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결과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HMM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추가 조사로 공격 주체를 파악한 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며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고,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했다"며 "사고 당시 선박은 해수면보다 1m 내지 1.5m 정도 상단 부분에 파손이 있었다.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정확한 비행체 정보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앞서 지난 6일 외부 피격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 때는 파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침수가 없었고 배가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외부 충격이 있었다는 말은 있었다"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그 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격 가능성을 조금 더 인지하게 된 것은 이후의 상황, 한참 후의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위 실장은 선박의 침수나 기울어짐이 없어 화재 초기 피격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브리핑했으나, 정부의 현장 조사 결과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격 충격으로 진동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으며 해당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박을 공격한 주체와 관련해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현재 미지의 영역이며, 우리는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여러 나라의 가능성도 놓고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

위장전입·위장결혼 등 부정청약 전수조사

국토부-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
총 43개 단지, 2.5만 가구 대상 진행

#. A씨는 아내, 자녀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아내만 윗집 장인·장모 세대로 전입시켰다.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서울 분양 아파트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것이다.

#. B씨와 C씨는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후 혼인신고를 했지만 법원 소송을 통해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정부가 부정청약자를 가려내기 위해 비현실적인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 사례가 잇따르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청약 당첨자 집중 조사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다.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를 포함한다.

정부는 위장전입, 위장결혼·위장이혼, 청약통장·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의심사례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청약가점제상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인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들여다본다. 청약가점제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과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값이다.

정부는 성인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부모는 최근 3년간 병원·약국 이용 기록이 담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으로 실거주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 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1일에서 최대 5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30세 이상 성인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 거주 요건을 3년으로 강화한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크래프톤, 쏘카 자율주행에 650억 투자

배틀그라운드 넘어 피지컬 AI 사업 확장
쏘카, '에이펙스 모빌리티' 설립 추진
AI 학습·시뮬레이션 기술 고도화

크래프톤과 쏘카가 자율주행 사업 협력 및 전략적 투자에 나선다. /각 사

크래프톤이 자율주행 시장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AI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 게임 개발을 넘어 피지컬 AI와 모빌리티 데이터 영역까지 사업 반경을 넓히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쏘카의 자율주행 사업에 65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다. 쏘카는 이를 기반으로 1500억원 규모 자율주행 신규 법인 '에이펙스 모빌리티' 설립을 추진 중이다. 크래프톤은 향후 신설 법인 투자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를 단순 재무적 투자보다 크래프톤의 AI 사업 확대 전략 일환으로 해석한다. 최근 크래프톤이 게임 AI를 넘어 현실 세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피지컬 AI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데이터다. 자율주행 산업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쏘카는 전국 카셰어링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 2만5000대 차량에서 하루 110만㎞ 규모 주행 데이터를 수집한다.

업계에서는 크래프톤이 이러한 데이터를 AI 학습과 시뮬레이션 기술 고도화에 활용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게임 AI와 자율주행 AI 모두 대규모 데이터 학습과 행동 예측, 실시간 판단 기술이 핵심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크래프톤은 최근 전사적인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업 조직 업무 자동화를 위한 AI 엔지니어 채용 확대에 나섰고, 게임 개발 과정에도 AI 기술 접목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 게임 넘어 '피지컬 AI' 확장

최근 크래프톤의 움직임은 단순 게임사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회사는 현실 물리 환경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피지컬 AI 분야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앞서 크래프톤은 피지컬 AI 연구를 위해 '루도로보틱스'를 설립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피지컬 AI 공동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방산·로보틱스 분야 협업도 확대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크래프톤은 AI를 단순 게임 기능 강화 수준이 아니라 미래 핵심 산업 기술로 접근하는 분위기"라며 "게임에서 축적한 시뮬레이션 기술과 AI 역량을 현실 산업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배틀그라운드 이후' 성장동력 찾기

시장에서는 이번 투자를 '포스트 배틀그라운드' 전략과 연결해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PUBG: 배틀그라운드' 흥행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단일 IP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크래프톤은 최근 AI를 차세대 성장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AI 기반 NPC 기술 '펍지 앨라이'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며, 인조이 등 주요 프로젝트에도 AI 기술을 적극 적용 중이다.

업계에서는 크래프톤이 향후 게임 개발과 자율주행, 로보틱스, 시뮬레이션 기술을 연결하며 AI 중심 기업으로 체질 전환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게임 산업 성장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AI 기반 신사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빛나 기자 vitna@